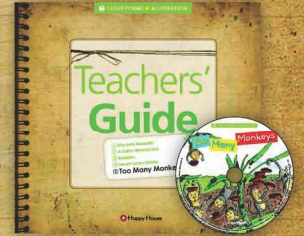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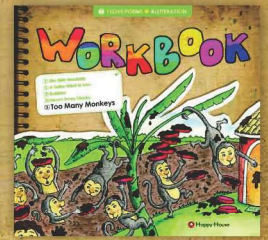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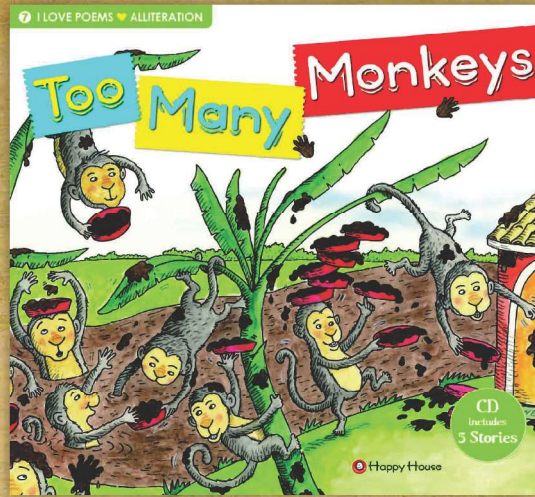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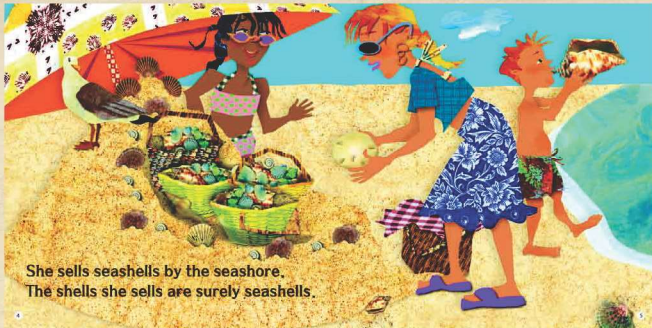
Too Many Monkeys

with 4 more stories

- ♥ She Sells Seashells
- ♥ A Sailor Went to Sea
- ♥ Bubbles
- ♥ Seven Scary Sharks
- ♥ Too Many Monkeys



She Sells Seashells



어려운 발음 놀이 문장(Tongue Twister)으로 유명한 She Sells Seashells은 200년 전 어촌에서 조개 화석을 수집해 팔던 여자아이 메리 애닝에게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메리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화석 가게를 이어받아 오빠와 함께 바닷가로 채집을 다녔습니다. 그녀는 11세 때 이상한 머리를 가진 거대한 어룡 이크티오사우루스의 화석을 최초 발견했고, 이후 평생 화석 채집에 바쳤습니다. 사후에야 정식 화석학자로 인정받았지만, 그녀의 발굴품들은 현재 영국 자연사 박물관의 메리 애닝 갤러리에 소장돼 있다고 합니다. 바닷가에서 조개를 채집하는 메리를 상상하면서 흥겨운 리듬으로 따라 부르다 보면 재미있게 /s/ 사운드를 배울 수 있습니다.

A Sailor Went to Sea



호기심이 많은 젊은 선원의 모험 이야기를 다룬 A Sailor Went to Sea는 구전 동요입니다. 바닷가를 신나게 전진해나가는 선원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바닷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선원(sailor), 바다(sea), 보다(see) 등의 단어가 담겨 있는 흥겨운 노래를 따라 부르다 보면 재미있게 /s/ 사운드를 배울 수 있습니다.

Bubbles



비눗방울 놀이를 하는 토끼 삼남매(Bella, Billy, Bobby)와 함께 /b/사운드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창작 라임입니다. 아직 비눗방울 놀이가 서툰 막내 Bobby는 언니, 오빠처럼 bubble을 열심히 불어보지만 알뜰게도 비눗방울은 계속 터져 버립니다. 토끼 삼남매처럼 비눗방울 놀이를 하면서, 흥겨운 리듬으로 따라 부르다 보면 재미있게 /b/ 사운드를 배울 수 있습니다.

Seven Scary Sharks

햇빛이 내리쬐는 오후 바닷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얀 파도가 부서지는 바다에서는 무서운 상어 일곱(seven) 마리가 수영을 하고, 끈적끈적(slimy)한 오징어(squids) 일곱(seven) 마리가 스키를 타고, 부드러운(slippery) 모래 사장에서는 물개(seals) 일곱(seven) 마리가 잠들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시간가는 줄 모르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파도 타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벌어지는 즐거운 일들을 상상하면서 흥겨운 리듬으로 따라 부르다 보면 재미있게 /s/ 사운드를 배울 수 있습니다.

Too Many Monkeys

수십 마리의 말쑥꾸러기 원숭이(monkeys)들이 진흙으로 장난을 치는 이야기를 다룬 Too Many Monkeys는 창작 라임입니다. 원숭이들은 진흙(mud)으로 파이(pies)를 만들고, 순식간에 주변을 엉망(messy)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편함(mail box)도 염마가 아끼는 머그컵(mug)도 진흙투성으로 둔갑시키는 건 순식간이네요. 말쑥꾸러기 원숭이들과 함께 박진감 넘치는 리듬을 따라 부르다 보면 재미있게 /m/ 사운드를 배울 수 있습니다.